

## 아파트 식생활 영역의 수납공간에 관한 연구

권명희\*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연구조교)

김선중 (울산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주거환경학과 교수)

본 연구는 식생활 공간에서의 효율적인 수납방안을 모색하고자 조리물품 수납에 관한 실태 및 거주자 의견을 파악하여 거주자의 수납만족을 높일 수 있는 수납공간 계획에 도움이 되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아파트 식생활 공간의 수납실태와 거주자의 수납태도, 수납만족, 수납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 울산시에서 최근 10년 이내에 지어진 20평형대와 30평형대, 40평형대 아파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9월 27일부터 10월 12일까지 15일 동안 이루어졌다. 자료분석 방법은 빈도와 백분율, 교차분석, 변량분석, 요인분석, 군집분석을 이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1) 수납가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부엌 키큰장과 보조 수납기구 그리고 식기 장식장은 40평형대에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으며 선반과 다용도실 수납가구 설치의 비슷한 비율을 나타내었다. 부엌작업대의 배치유형과 평면 연결형태는 평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 2) 현재 수납하기 어려운 조리물품은 가전제품과 냄비류, 조리보조식품 및 가공식품으로 수납하기 어려운 이유와 부족한 수납공간을 느끼면서 실제 개선하지 못한 이유는 평형별 다르게 나타났다.
- 3) 조리물품 중 후라이팬류와 바구니류 및 접시류, 잔·컵류, 찬통류, 준비도구류, 그리고 교자상류의 수납장소는 평형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가전제품은 차이가 나타났다.
- 4) 수납에 관련된 거주자의 습관으로 자주 쓰는 물품과 그렇지 않은 물품을 구분하여 정리할 때 「물품에 따라 가능한 구분하여 보관한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 5) 식생활공간에 대한 수납방법을 요인분석 한 결과 4개 요인으로 분류하여 요인 점수를 이용하여 군집분석 한 결과 노력 수납형, 공간유지 수납형, 공간유지 수납형, 저장수납형의 4개의 수납방법유형으로 분류되었다.
- 6) 수납가구별 만족은 부엌 키큰장, 부엌보조기구, 식기장식장의 만족이 20평형대와 30평형대 보다 40평형대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조리물품 수납에 대한 만족은 평형과 관계없이 다용도실의 수납가구에 불만이 높으며 양파나 감자 같은 보관용 야채 수납에 대한 만족이 낮은 점수를 보였다.
- 7) 조리물품 수납 만족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 수납의 「기능성」, 「보관성」, 「위치성」, 「식별성」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만족요인을 군집분석 한 결과,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보관·위치 중시형」, 「기능·식별 중시형」, 「기타 중시형」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

- 8) 부엌의 수납방식은 작업행위와 가까운 수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식당의 수납방식은 시각적 미를 고려한 수납 그리고 다용도실의 수납방식은 많은 물품 수납을 요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조리물품 수납요구는 평형에 관계없는 결과를 보였다.
- 9) 조리물품 수납 요구 문항을 요인 분석한 결과에서 나타난 7가지 요인 즉, 「수납공간 우선 지향」 그리고 「편리성 지향」, 「기능성 지향」, 「조리편리성 지향」, 「사용중시 지향」, 「보관성 지향」, 「실용성 지향」을 가지고 군집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집단별 특성을 고려하여 「적응형」, 「사용중시형」, 「보관 중시형」의 3집단으로 분류하였다.